

국비 확보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중앙 공모사업 적극 대응 국비 22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중앙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비 22억원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초에만 총 4건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2억 4천2백만원, 도비 10억 8천8백만원 등 사업비 39억 3천만원에 마련했다.

선정된 사업 분야로는 문화예술, 예술인복지, 관광기업지원센터, 관광사업(전북 치유·의료관광)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국비 4억 4천2백만 원을 확보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예술인 과건지원 사업-예술로(이하 예술로)’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예술적 기획, 협업구조를 확대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3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로컬관광 활성화와 관광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23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수행 평가 결과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통 문화와 치유음식, 한방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관광 거점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외부 자원을 확보해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생태계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 많은 문화와 관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2월 28일 세종학당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세종학당재단 ‘맞손’

한국어·전통문화 세계화·한국문화 관련 체험 추진 등 협력키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지난 2월 28일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으로는 △한국어·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 △한국문화 관련 체험·전시·공연 등 기획 및 공동 추진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및 편의 제공 등이 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강점을 잘 살려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해 매우 기쁘다”며 “세종학당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세계 세종학당의 학습자를 비롯한 세계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전통문화 세계화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은 한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한지·한식·공예·전통놀이·한복 등 전통문화를 대중화·산업화·세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

‘새롭게 만나는 미륵사지’ ... 익산 굿즈 디자인 공모

21~28일 접수... 당선작 미륵사지·익산 홍보 위한 굿즈로 활용

익산시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미륵사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문화도시 익산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디자인 발굴에 나섰다.

센터는 3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된 미륵사지를 주제로 한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굿즈 디자인 △디지털 일러스트 및 그래픽 디자인 두 분야로 1인당 2건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1개 팀에 총상금 1,19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당선작은 미륵사지와 익산 홍보를 위한 굿즈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도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익산시 대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가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재능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

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culturecityiks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3)로 하면 된다.

한편,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해 2년간(2023~2024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다. 미륵사지는 지역 문화유산 분야에 선정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인천새일센터 벤치마킹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전정희 원장)는 지난 2월 29일 도내 9개 여성새일하기센터와 함께 인천광역·부평새일센터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지역 우수 새일센터의 사

업운영과 노하우를 공유해 도내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인천광역·부평여성새일하기센터는 새일센터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등급 상향된 결과를 받은 우수새일센터로, 경력

단절예방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지원사업,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새일센터 역량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정희 원장은 “이번 우수새일센터 벤치마킹은 새일센터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전북지역 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센터간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jwfv.or.kr) 또는 취업지원팀(063-254-3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는 지난 2월 29일 도내 9개 여성새일하기센터와 함께 인천광역·부평새일센터를 벤치마킹했다.

우진문화재단, 봄시즌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라)은 봄시즌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세를 올바르게 잡고, 유연성과 근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성인발레 클래스’, 낭독의 개념을 익히고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한 낭독극을 만드는 ‘낭독 클래스’, 내가 가진 목소리를 탐구하며 심청가의 주요대목을 배워보는 ‘판소리 민요 클래스’, 12주동안 전통민화

를 완성하는 ‘민화 클래스’ 등 총 4개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 충족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사무국(063-272-7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립농악단, 토요일상설공연 ‘정읍농악 9경가세’ 개최

정읍시립농악단이 3월 9일을 시작으로 토요일마다 ‘정읍농악 9경가세’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11월 9일까지 내장산문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다.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정읍농

악(김놀이, 오재질굿, 오방진굿)과 잇혀져 가고 있는 전통연희 마당인 사물놀이, 수타타(버나놀이), 사지춤, 소리, 발탈, 12발 상모, 소고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체험의 기회도 함께 할 수 있다. /정은=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